

‘밤하늘 밝히는 1500대’... 녹동항 드론쇼 ‘팡파르’

전남 최초 군집 비행쇼 등 선사 체류형 야간관광콘텐츠 등 강화 11월까지 매주토요일마다 진행

고흥군 녹동항에서 13일 드론 1500대가 장관을 이룰 예정이다.

고흥군은 ‘2024 고흥 녹동항 드론쇼’ 개막이 13일 오후 녹동항에서 펼쳐진다고 11일 밝혔다.

녹동항 드론쇼는 이날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매주 펼쳐진다. 고흥군은 드론 중심도시 고흥 이미지 마케팅을 구축해 지역관광과 상권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알찬 드론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드론쇼는 13일 오후8시 녹동항 바다정원에서 식전 버스킹 공연을 시작으로 전

남 최초 드론 1500대 군집비행쇼, 멀티미디어 불꽃쇼, 오리퇴치 상용 드론 비행시연, 레이져쇼 등을 선보인다.

개막 공연 작품은 ‘2024 힙찬 도약 희망찬 고흥의 봄!’을 주제로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을 알리는 공감 연출콘텐츠를 구성해 공연이 펼쳐진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매 주말 드론쇼가 펼쳐지는 녹동항 일원에 먹거리 타운 포차&푸드트럭존과 농수특산물 직거래 판매장이 상시 운영된다.

공연장 주변 드론쇼와 연계해 확 달라진 소록대교 경관조명쇼, 민속놀이 체험존, 돛영상관, 가상현실(VR) 체험관 등 볼거리, 즐길거리 체류형 야간관광 콘텐츠를 강화해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작년 처음 선보인 녹동항 드론쇼는 고



흥 대표 야간 볼거리 관광 기획 상품이며 전남 최초 상설 공연이다. 매주 스토리가 있는 차별화된 연출콘텐츠를 구성해 음악에 맞춰 다양한 색상과 패턴으로 환상적인 공중 아트 조형물 드론 라이트쇼 군집비행 퍼포먼스 공연을 펼쳐 전국적인 명성과 함께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개월 앞서 4월부

터 시작해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드론 700대를 활용 군집 비행기술과 입체감 있는 예술적 감각이 콘텐츠 주제를 마련해 운영된다.

지난해 누적 관람객 18만명, 직접적 경제효과 150억원을 거둔바 있다.

공연명 군수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밤마다 소록대교 야경을 배경 삼아 화려하게 수놓을 전남 최초 시행하는 녹동항 드론쇼 상설 공연이 지붕없는 미술관 고흥의 또 다른 매력과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관람객이 안전한 가운데 관람할 수 있도록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안전 계획을 철저히 세웠다”고 말했다. 양기람 기자

피아노 연주 무대 참가 접수 신안 피아노섬 축제

신안군이 100+4 피아노섬 축제 둘째 날 28일에 진행되는 ‘나도 100+4 피아니스트’ 참가 접수를 25일까지 받는다.

피아노 바이엘 이상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 접수는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https://pianoislandfestival.modoo.at/>) 접수 인원이 부족한 경우 행사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본행사는 일반인들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무대이며 참가자들은 자신만의 음악적 기교로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27~28일 개최되는 100+4 피아노섬 축제가 피아노 선율과 함께하는 축제가 되기 바란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즐거움과 행복을 선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조생종 비파’ 본격 출하 전남농기원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은 완도 지역특화 소득작목인 ‘조생종 비파’가 수확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전남은 비파의 주산지로 144농가 83ha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그중 완도군은 114농가 72ha를 차지하고 있다.

비타민A, 펙틴, 칼륨, 무기물 등이 풍부한 기능성 과일인 비파는 노지에서 보통 6월~7월에 수확되는데 수확 시기가 장마철과 겹쳐 품질이 떨어지고 집중 출하로 소득 창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는 지난 2022년 시설하우스 내 환경관리 기술을 개발해 12월 초부터 난방을 실시하고 적절한 열매숙기와 봉지 씌우기를 통해 출하 시기를 2~3개월 앞당겨 생산하고 있다.

조기 출하하는 완도군 군외면 ‘비파이야기 농장’ 고영미 대표는 과수연구소의 기술지원을 통해 마켓컬리에서 250g에 2만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고영미 대표는 “스마트팜 온실 관리를 통해 3000㎡ 비파 농장에서 5월 중순까지 3톤 수확이 예상된다”며 “과일 구독 서비스인 ‘월간 농협맛선’에 4월 구독상품으로 포함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손장한 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장은 “시설하우스 재배에 맞는 비파 품종 개발과 환경관리법 기술지원을 통해 고소득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백간재 기자

진도군 12~14일 유채꽃 마을축제 판매도·군내농공단지 등서

진도군은 12~14일 판매도와 군내농공단지 등에서 ‘제1회 보배섬 유채꽃 마을축제’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조도면 판매도 24만7500㎡(7만5000평)와 군내농공단지, 송군삼거리, 귀성마을, 남도진성 등 마을 10개소에 대단위 유채단지를 조성했다.

군은 축제장 4곳 이상 방문해 도장을 받은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진도 특산물을 지급하는 도장이어찍기 행사를 갖는다. 말타기체험, 얼굴에 그림그리기, 보물찾기 등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즐길거리와 체험거리를 준비했다.

행사 첫날인 12일 유채와 진도를 주제로 그림과 글짓기 대회인 초등학생 사생대회, 13일 코스브 자전거 대회와 유채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가족건강 걷기축제를 실시한다. 진도=백재현 기자



전남농기원이 기능성 과일 ‘조생종 비파’ 본격 출하에 나섰다. 고영미 완도군 군외면 비파이야기 농장 대표. 전남농기원 제공

전남도, 광주시와 호남권 관광 발전 협력 다짐

시도 교류 글로벌 관광시장 도약

전남도가 광주시와 호남권 관광발전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전남관광재단(대표이사 김영신)은 광주관광공사(사장 김진강)와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해 관광활성화에 나설 것을 다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은 △광주-전남 공동 관광상품 개발 △호남권 광역 연계 시티투어 코스 개

발 및 운영 △광주-전남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동 홍보마케팅 등이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웰니스·MICE관광 연계 공동 마케팅 추진, 광역관광상품 공동 기획 운영 등 협력을 추진하며 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무안국제공항 정기노선 확대 유치와 연계, 동남아 시장 공략을 위한 K-관광 로드쇼 공동 참가 및 국내·외 여행업계 대상 홍보 설명회 개최 등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무안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남-광주 공동상품을 운영하기로 해 인바운드 관광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입국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관광재단 김영신 대표이사는 “광주-전남 특화 관광자원 연계를 통해 글로벌 관광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시도 관광전담기구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백간재 기자

전남 농수산물·화장품, 태국·인도서 인기몰이

전남 농수산물과 화장품이 태국과 인도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광주전남지원단과 함께 지난 1~5일 태국 방콕, 인도 뉴델리에서 수출상담회를 열어 1753만 달러 규모 수출상담과 70만 달러 업무협약 성과를 거뒀다.

시장개척단에 김, 스낵, 해초면 등 농수산물 4개사, 화장품 2개사를 파견,

74개 현지 바이어와 1753만 달러 수출상담을 추진했다. 이 중 이노플렉스는 태국 바이어와 70만 달러 규모 해초류 성분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MOU를 체결했다.

(주)바이오에프디엔씨는 식물세포를 활용한 화장품, 울바름은 유기농 쌀 가공식품, (주)한국오오타식품은 즉석미역국, (주)해정정과 해미푸드는 해조류 국수면을 수출해 태국과 인도 시장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수출상담회 외 KOTRA 방콕 무역관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해 FTA 활용 홍보와 상담·컨설팅을 추진, 참가기업의 수출시장 확대에 도 발판을 마련했다.

신현군 국제협력관은 “전남경제 버팀목인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성공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간재 기자

‘남도서 한달 여행’ 참가자 모집 여수시, 17일까지 접수

여수시가 오는 17일까지 ‘남도에서 한달 여행하기’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일 여수시에 따르면 ‘남도에서 한달 여행하기’는 참가자가 최소 7일에서 최대 14일 동안 전남 22개 시·군을 여행하면서 개인 SNS, 블로그, 유튜브 등에 남도 여행을 홍보하면 여행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숙박비, 체험활동비 등 하루 최대 1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참가자는 여수시에서 숙박 및 50% 이상 여행 활동을 해야 한다.

모집 예정 인원은 10개 팀 15명이며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광주·전남 지역외 거주자로 SNS를 통해 여수 및 전남 관광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자를 우대 선발한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17일까지 여행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여수시 관광과로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관광과 관광진흥팀(061-659-3865)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이경기 기자



상설 담양시장 26일 정식 개장

담양 5일시장이 오는 26일 개장한다.

11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상설시장 개장을 앞두고 지난 5일 입점상인 36명과 입점계약을 맺고, 시장상인회 구성을 위한 발기인을 구성했다. 전문가 맞춤형 상담도 추진중이다.

담양시장은 지하 1층, 지상 3층 총면적 6213㎡ 규모로 지하 주차장 64면, 1층 판매장 43개, 2층 식당 7개, 3층 카페 1개 등을 갖추고 올해 3월 말 준공됐다.

‘담양은 언제나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주제로 26~27일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장 축하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잔여 점포는 1층 농산물판매점 2개와 공산품 판매점 13개, 2층 식당 1개로 입점 희망자는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담양=신재현 기자